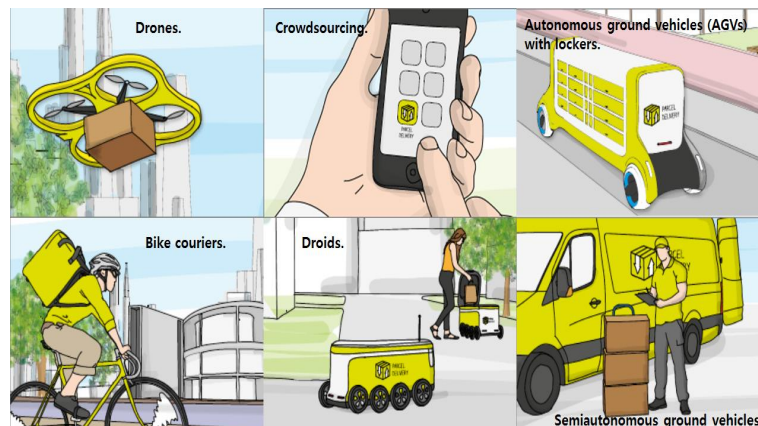




## 1. 맥킨지, 미래 택배 배달 모델 제시

- ☑ 미국과 독일 택배시장은 2025년까지 두 배 성장하며, 현재 당일배달과 즉시배달은 현재 택배시장의 1% 미만이나 2025년에는 20%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
- 2025년까지 택배 80%를 자동화된 수단으로 배달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배달을 위한 미래의 7가지 모델을 제시
    - (인적배달) 택배원이 방문 배달하는 전형적인 배달 모델
    - (드론) 15kg까지 직선 경로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배달
    - (크라우드소싱) 배송 공유서비스를 통해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배달
    - (AGVs: Autonomous ground vehicles with lockers) 잠금장치가 있는 다수의 보관함을 설치한 무인트럭을 통한 배달
    - (자전거 배달): 현재 point-to-point 배달에 이용되는 자전거 배달
    - (드รอย드): 비교적 느린 속도로 도로변을 통해 운행되는 소형 자동운송차량
    - (반자율 운송차량): 현재 트럭배달과 유사하나 스캐닝, 도착알림 등 부가업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여 배달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달

[그림 1] 미래 택배 배달 모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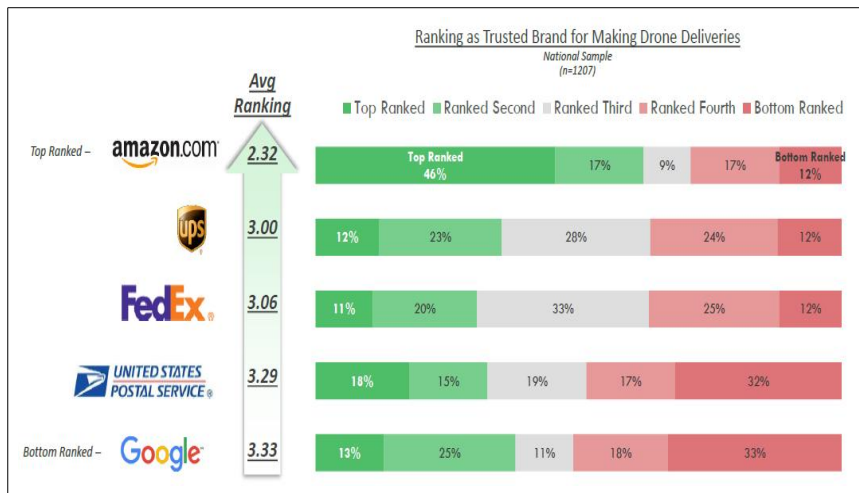
출처: McKinsey & Company(2016. 9), "Parcel delivery: The future of last mile".

## 2. 미국, 드론 배송에 관한 서베이 조사 결과

☒ 아마존, 알리바바, 라쿤텐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드론 배송 관련 기술 개발 및 시험 비행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우편검사국(OIG)은 드론 배송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 (2016. 10. 11)

- 미국 소비자들은 드론 배송이 향후 5~10년 이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(75%), 아직까지는 드론 배송 기술과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(37%)으로 조사됨
- 미국 소비자들은 드론 배송에 있어 아마존(amazon)이 미국 우정(USPS)보다 더 신뢰 있는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으며, 빠른 배송과 긴급 배송 분야에 드론 기술이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음
- 하지만 미국 우정(USPS)의 드론 배송 실현은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식되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됨

[그림 2] 드론 배송을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브랜드



출처: 미국우편검사국(2016. 10. 11), "Public Perception of Drone Delivery in the United States"

### 3. USPS, 2017년부터 우편요금(Shipping Price) 평균 3.9% 인상 계획 밝혀

☒ USPS(미국 우정)는 2017. 1월부터 주요 국제우편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우편서비스에 대한 요금(Shipping Price)을 평균 3.9% 인상할 계획을 밝혔

- USPS에 따르면, Priority Mail(자국 내)의 우편요금을 평균 3.9%(이 중 Priority Mail Retail Price\*는 평균 3.3%) 인상할 계획을 밝힌 반면, 주요 국제우편서비스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밝혔

\* Priority Mail Retail Price: Priority Mail의 요금은 크게 Retail, Commercial, Commercial Plus로 구분할 수 있는데, 이 중 Retail은 일반요금, Commercial은 온라인 상에서 라벨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할인 요금, Commercial Plus는 대량으로 발송하는 기업 고객에게 해당하는 할인 요금을 의미함

– 앞서 2016년 9월에는, USPS가 First-Class Mail Parcel(자국 내)의 요금을 2017년 1월부터 0.6% 인상하겠다고 PRC(우편규제위원회)에 요청해 놓은 바 있음

- USPS의 경쟁자인 UPS, FedEx의 우편요금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, 다음과 같음

– UPS: 최근 모든 자국 내 육상(ground), 항공(air)을 이용한 우편서비스, 국제 우편서비스의 요금을 평균 4.9% 인상하겠다고 밝혔

– FedEx: 자국 내 혹은 미국 수출·입 FedEx Express 소포, 화물 운송 서비스의 우편요금을 평균 3.9% 인상하겠다고 밝혔

〈표 1〉 USPS 우편서비스 종별 요금 인상 계획

구분	종류	인상 계획
국내 우편서비스	First Class Mail Parcel	0.6%
	Priority Mail	3.9%
국제 우편서비스	First Class Package International	변동없음
	Priority Mail International	
	Priority Express International	

출처: CEP RESEARCH(2016. 10. 20), “USPS plans 3.9% average rise in shipping prices for 2017”.

#### 4. 호주우정, 소포배송 능력 확대한 전기 배송차량 도입

- ☒ 호주 우정은 새롭게 선보이는 전기 배송차량을 도입하여 집배원들의 소포 배송 능력을 확충할 계획
  - 해당 전기차량은 기존 집배 이륜차보다 3배의 소포 적재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, 100여개의 소형 소포와 1,200통의 우편을 한번에 나를 수 있음
    - 해당 차량은 이미 뉴질랜드, 독일, 스위스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된바 있으며, 배송 용량과 탄소 저감 등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
  - 호주 우정은 내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기차량을 통한 배송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, 2017년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을 목표로 함(도로교통부 승인 필요)
  - 전기차량 도입은 통상우편 손실의 감소와 소포의 비약적 성장에 따라 4억 달러의 흑자 전환에 힘입은 바 큼
    - 호주 우정은 지난 10년간 자신들의 포지션을 e-Commerce의 리더가 되는 것으로 삼고 사업의 변화를 시도해 왔으며 소포부문 매출이 전체의 50% 이상을 차지함
    - 호주 우정은 이번 차량 도입으로 집배원들의 소포배송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, 배달 순로를 도는 과정에서 복지 바꾸쳐 배송, 계량기 검침 등 국민들이 원하고 집배원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제공할 것이라 밝힘

[그림 3] 호주우정이 신규 도입한 전기 배송 차량



자료: 호주 우정

출처: CEP Research(2016. 10. 16), "New Australia Post delivery vehicles can carry more parcels".

## 5. '카톡'으로 외환송금 가능해진다

- ☑ 내년부터 은행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 돈을 송금할 수 있음
- 지난 9월 27일,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비금융사들도 독자적으로 해외 이체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·의결했음
  - 개정안은 지금까지 은행에서만 외환 이체를 할 수 있었지만,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금융사가 아닌 회사도 독자적으로 외환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
  - 소액 외화이체업체를 통한 외화이체 한도는 1인당 건별 3,000달러, 연간 2만 달러임
    - 카톡 등을 통한 외화송금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건당 수십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할 필요가 없어짐
  - 내국인이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PG사(온라인결제대행사)를 통해 외화로 물건 값을 치를 수 있게 되어 '직구'와 '역(逆)직구' 모두가 한층 간편해짐

[그림 4] 카카오톡 PAY 송금



출처: 이코노믹리뷰(2016. 9. 27), “카톡으로 외환송금 가능해진다”.

## 6. KB국민은행, 외국인특화외환점포 개설

### ☑ KB국민은행, 경기도 광주시에 평일 영업시간에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특화점포 개설

- 외국인특화점포는 평일에는 일반 영업점과 마찬가지로 정상영업을 하지만,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전·송금, 원화·외화예금, 카드발급, 출국만기보험 지급 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
- 베트남, 태국, 캄보디아 이주여성을 상담직원으로 채용해 송금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통역 서비스 지원
- KB국민은행은 외국인특화점포로 서울 오장동지점, 안산 원곡동외환송금센터, 경남 김해지점, 경기도 광주시 경안지점 등 4개 지점을 보유
- 우리은행, KEB하나은행, 신한은행도 외국인특화점을 운영 중임
  - 우리은행: 9곳의 외국인특화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2곳(김해외환송금센터, 원곡동외환송금센터)은 평일 저녁 및 일요일에도 운영
  - KEB하나은행: 외국인VIP센터를 포함하고 35곳의 외국인특화점을 운영하고 있으며, 그 중 11곳이 일요일영업점으로 운영
  - 신한은행: 안산 원곡동 외환센터 운영, 평일 저녁 및 일요일 운영

[그림 5] KB국민은행 외환송금센터



출처: 서울경제(2016. 10. 31). 'KB국민은행, 경안지점 외환송금센터 오픈', 각 은행사 홈페이지.

## 7. 내년 보험산업 성장률 2%대로 하락 전망

☒ 저금리 고착화로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 부분이 역성장함에 따라 내년 보험산업 성장률이 2.2%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

-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,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보험료 수입의 성장세도 둔화되어 2017년 성장률은 금년 3.2%보다 낮은 2.2%에 머물것으로 전망
  - 생명보험은 보장성보험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나, 저축성보험은 역성장하면서 올해 2.7%에서 내년 1.7%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임
  - 손해보험은 연금부문과 저축성부문에서 역성장이 심화되어 올해 3.8%에서 내년 2.9%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
-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저축성보험의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고, 소비자의 수요도 위축된 것이 원인
- 보험산업의 저성장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사항 제시
  - 단기실적 중심의 경영자 성과평가 체계를 장기적 보유계약가치와 연동된 체계로 개선
  -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따른 RBC 하락을 막기 위해 가용자본 확충보다는 요구자본 경감을 위한 자산운용전략을 구사할 필요
  - 유료투자자문 도입, 후취형 변액보험 판매 확대 통한 수수료 수입 확충, 중고자동차 보증연장보험 도입, 자동차 보험 한방비급여 의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 등 필요

〈표 2〉 보험료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	2014		2015		2016(F)		2017(F)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전체 보험산업	187.2	4.4	197.5	5.5	203.7	3.2	208.2	2.2
- 생명보험	110.6	1.9	117.2	6.0	120.4	2.7	122.5	1.7
- 손해보험	76.6	8.3	80.2	4.8	83.3	3.8	85.7	2.9

출처: 한국보험신문(2016. 10. 11). '내년 보험산업 성장률 2%대로 하락...저축성보험 역성장'.  
 뉴시스(2016. 10. 11). '2017년 보험업계 성장률 2.2% 전망...역대 최저수준'.

## 8. K보험업계 경력단절여성 특화 영업조직 구축 '안간힘'

- ☑ 보험사들이 경력이 단절된 30~45세 여성들의 특화영업 조직 구축에 힘쓰고 있음
  - 영업채널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고령화된 전속설계사채널을 젊은 전문가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임
    - 20~30대 설계사 비중은 2007년 47.2%에 달했지만 2015년 25.9%로 급감한 반면 50대 설계사 비중은 2007년 12%에서 2015년 29%로 크게 늘었음
  - (삼성생명-리젤(Life Angel)) 2016년 1월 리젤지점을 론칭하여, 올해 하반기에 서울 강북과 강남, 인천, 수원 등에 4개 지점을 추가로 오픈한다는 계획
    - 일반적으로 한달 간의 교육을 마친 후 영업현장에 투입되는 것과 달리 4개월 동안 체계적인 교육기간을 거쳐 손해보험사, 증권사, 카드사 모집인 자격취득 후 종합적 재무설계가 가능하도록 함
  - (교보생명-퀸(K-Win) FP) 본사 차원에서 직접 육성하는 전문 여성조직으로 10월부터 파일럿형태로 출범할 예정
    - 초대졸 이상의 직장경력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월 150만원 정도의 고정급을 받으면서 설계사 전문조직으로 키운다는 전례 없던 변화를 주었음
    -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기 용이함

[그림 6] 삼성생명, 교보생명 경력단절여성 FP



출처: 한국보험신문(2016. 10. 4). '경단녀 설계사 조직, 기존 설계사 반발 우려'.